

은혜가 시작될 때

■ 본문

눅 8:43-48

■ 시작 찬송가

304, 441, 446장
(통 404, 498, 500장)

■ 헌금 찬송가

361, 88, 91장
(통 480, 88, 91장)

▶ 교회의 완성

1.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됨 (행 13:32-33)
2. 교회는 장차의 혼인날을 기다리는 신부임 (계 19:7-8)
3. 교회는 세상을 이김 (계 17:14)

▶ 교회의 의미

1.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자들의 모임 (엡 5:25-29)
2.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곳 (행 20:28)
3. 그리스도가 거룩히 하시는 곳 (엡 5:26-27)
4.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곳 (엡 2:19-20)
5. 그리스도에 의하여 친히 세워진 곳 (마 16:18)
6.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곳 (엡 5:25)
7.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는 곳 (엡 5:24)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상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상하고, 다치고, 깨지고, 망가질지라도 은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사모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눅 8: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걸어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여인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 주의 옷자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간절히 구할 때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마 9: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가진 것과 상관없이 은혜가 시작됩니다.

야이로는 회당당으로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였습니다. 반대로 혈루증 여인은 부끄러움이 있기에,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떳떳하게 예배당에 들어오던지 부끄럽게 들어오던지, 모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행복하든지 고난중에 있든지 은혜가 시작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행복하게 12년을 살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행복하던 야이로의 딸에게도 어려운 날이 닥쳤고,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불행했던 혈루증 여인에게도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만나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2) 예수님이 멈추실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멈출 때, 그 공간과 시간에 은혜가 시작됩니다. 교인은 잘 멈추어야 합니다. 화려했고 위대한 것이 아닌, 연약한 자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주일에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께 멈추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출 31:13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3) 은혜의 노래가 은혜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노래가 시작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으로 완전히 덮으시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절망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붙잡은 것이 은혜의 노래의 시작입니다.

시 51:11-12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4) 은혜의 시작은 사ق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병고침 받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 목적은 그냥 능력을 주고, 낫게 하고, 복되게 하고, 돈 벌고,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나기 원하시며, 사قم을 원하십니다. 은혜의 시작은 그냥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사ق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아프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사قم 속에 있으면 영원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주님의 옷자락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다른 말인 채플은 옷자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성인 마르탱(martinus)이 그의 외투를 헐벗은 거지에게 찢어 준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외투는 이탈리아어로 카펠라(cappella)이며, 여기서 채플(chapel)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옷자락을 과감하게 떼어줄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눅 8: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1. 교회를 설립하심 (마 16:18)
2. 교회를 양육하심 (엡 5:29)
3. 교회를 불드심 (계 1:16)
4.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심 (마 28:20)
5. 교회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심(롬 8:35-39)
6. 교회를 충만케 하심 (엡 1:23)
7.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심 (고전 7:23)
8.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 (고전 8:11)
9.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심 (계 2:10)
10. 교회에게 언약을 주심 (계 3:21)

오늘의 한마디

주의 옷자락인 교회를 잡으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의 안보와 통일을 위하여
2.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5.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들을 위하여
6.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7. 에너지(물, 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8. MCM,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및 C채널 방송선교를 위하여
9.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